

성경의 권위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

오늘날 '권위'라는 단어는 기존의 체제와 특권과 압제와 폭정을 떠올리게 해서 매우 불순하고 혐오스런 단어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족, 학교, 상관, 교회, 국가 또는 하나님과 같은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모두를 모욕하는 모든 불의와 차별에 대항하거나, 인간이 '체제'나 '제도'에 착취당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는 행동이 반권위 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허용하시는 적절한 자유가 아니라, 법치 제도를 위협하는 무정부 상태와 하나님을 떠나 자율성을 획득하고 각자가 스스로에게 법이 될 자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정의는 결코 상대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초]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고 그들 삶에 우선되는 권위를 가진다고 믿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 자체가 주제의 장대함과 메시지의 통일성, 거대한 영향력으로 그 권위를 스스로 입증시켜 주는 이유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충성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다”(마 11:27)고 말씀하셨고,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요 7:16)이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요 3:11)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그 간단한 이유 때문에 그가 가르치신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의 마음에 복종시키고 생각을 그의 생각과 일치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선과 악, 의무와 운명, 시간과 영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규정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부분도 배제시킬 자유가 없으며, 그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할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은 진리, 곧 하나님 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타당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마 5:17-18) 또한 그분은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곤 하셨습니다.(막 12:36, 마 19:4-5)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성경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질문이나 문제에 맞닥뜨릴 때마다 성경의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1) 개인적 의무의 영역

예수님의 삶은 어떤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까? 사탄이 유대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은 매번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논쟁이나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려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2) 공적 사역의 영역

예수님은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신이 여러 시편과 예언서에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 기름부음 받은 왕, 고난받는 종, 영광의 인자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 자신이 섬기고 고난받고 죽어야만 그러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이것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그분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마 26:54)는 말씀을 성경이 그에게 부과한 필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 주었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그분은 기꺼이 이를 순종하셨습니다.

3) 공개적인 논쟁의 영역

복음서에는 많은 공개논쟁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눅 10:25-26)고 되받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견해를 펼치거나 그것을 인용하실 때 그는 전적으로 겸허하게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신약의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를 원하셨고, 사도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중하게 신약 성경이 쓰일 것을 대비하셨습니다.

‘사도’라는 직함은 예수님 자신이 열두 제자들의 역할을 지칭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명칭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중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눅 6:13) 마가는 덧붙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막 3:14) ‘아포스텔로’(apostello)라는 동사는 ‘보낸다’는 뜻이며, 그들을 보내신 목적은 가르침과 말씀전파였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구체적인 위임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사도’라는 직함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분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였고, 그런 자격으로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엡 2:20, 3:5)

사도들은 그들의 임무를 위해서 세 가지 자질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그들의 친명

사도들은 스스로 나서거나 다른 사람 혹은 교회 공동체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선택받아 임명되어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2) 그들의 역사적 경험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을 임명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막 3:14)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후에야 말씀을 전파하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행 1:21-22)

3) 성령의 특별한 영감

성령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며,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25-26,

16:12-13)

[사도들의 권위 인정]

예수님은 이같은 약속으로 신약의 기록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한 지위에 임명하셨음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사용했고 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쓴 편지가 구약과 더불어 공개적으로 읽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살전 2:13)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고전 2:13) 그는 자신이 명한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의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살후 3:6-15, 고전 14:37) 베드로 역시 그가 전파함으로써 신자들이 회심하게 된 그 말씀이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벧전 1:22-25) 그리고 요한은 자신과 동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요일 1:1-4) 사실상 교회 지도자들이 행사하는 권위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사도의 가르침에 부합되는지, 사도의 권위를 따르는지 여부였습니다.(요일 4:6, 요이 1:9-10, 요삼 1:9-10)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여하셨고 사도들 스스로가 인식했던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오순절 새롭게 성령충만해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 힘썼다”(행 2:42)고 기록합니다. 신약의 정경성을 확정하는 것과 특히 어떤 책을 배제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사도적 권위의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논할 때, 성경이 신적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목격자들의 감명을 기록하고 있는 1세기의 역사적 기록물로서 간주하고 복음서의 가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예수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이 주 예수님이 처음에 갖지 못했던 성경에 대한 교리(예수님 자신의 교리)를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역사적 기록들이 성경에 대한 교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관련된 주된 문제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구약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고 권위를 부여하여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사도들을 배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권위와 신약의 권위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궁극적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1)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기초가 됩니다.

제자도는 적어도 예배, 믿음, 순종,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할만한 객관적 계시가 없다면 이 요소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 안에서 소망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도의 네 가지 기본 요소인 예배, 믿음, 순종, 소망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믿음은 그의 신실하심에서, 순종은 그의 계명에서, 소망은 그의 약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2)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통합성(integrity)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통합성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통합된’(integrated) 사람이 지닌 정신적 특성입니다. 여러 종류의 신념들, 혹은 믿음과 행동이 양분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의견, 신념, 기준, 가치관, 욕망 등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주로 따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적인 영감설과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경에 철학적, 과학적, 문학적, 윤리적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행하셨다는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신을 유지합니다.

3) 성경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복종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모든 권위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자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분방한 사상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1-32)

4)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도의 기초가 됩니다.

어두움에 빛을, 두려움에 희망을 주어야 할 기독교 선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확신의 상실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성경에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을 살아 나갈 때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길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 현재까지 당신의 삶에서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성경은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 나누어 주세요.
2.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당신은 예수님처럼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나요? 성경을 대하는 당신의 입장을 나누어 주세요.
3. 당신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어렵거나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4.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1) 제자도의 기초이며, 2) 그리스도인 통합성의 기초이고, 3) 그리스도인 자유의 기초가 되고, 4) 전도하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살펴볼 때, 당신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당신 삶에 구체적으로 시작해야 할 적용점, 순종해야 할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